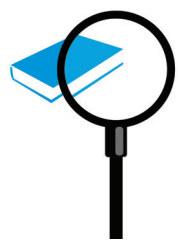


야근하는 나무·재충전 잡초... 풀의 시선으로 세상보기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원더 풀 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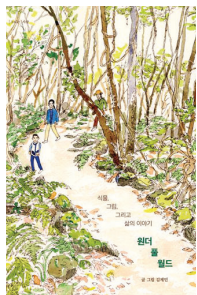
김제민 지음

5월을 지나며 산과 들의 초목들이 무성해지고 푸르러진다. 초여름으로 접어들면서는 그 색깔이 더욱 짙어지고 특유의 싱그러움을 발한다.

사실 익숙한 나무들과 꽃들을 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루하루 도시생활에 지쳐 생활하다 자연이 있는 곳을 찾다보면 스트레스와 피로가 씻겨가는 느낌이다.

그러나 산과 들에는 수목과 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저기 돌아나 무성하게 수풀을 이룬 잡풀들도 많다. 아니 나무와 꽃보다도 풀이 더 많다. 사방천지가 풀밭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풀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며 강한 생명력을 과시한다.

‘잡풀’이라고, 전혀 쓸모없는 식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편견일지도 모른다. 인간 중심주의, 강자의 논리가 만들어낸 일방적 시각일 수도 있다. 김제민 작가의 ‘원더 풀 월드’를 읽고 나면 그동안 가졌던 풀에 대한 편협한 생각은 교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달한다.

‘식물, 그림, 그리고 삶의 이야기’라는 부제처럼 책은 풀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이다. 한마디로 풀을 의인화한 것이 텍스트의 특징이다.

시각예술가이자 교육자인 저자는 다양한 자연 그 가운데에서도 식물에 관심이 많다. 식물을 관찰하고 촬영하며 그리며 이런 과정에서 스스로를 사유한다. 그의 표현대로 “얇은 지식과 썰렁한 유머를 무기 삼아 소소한 식물을 소재로 인간 사회에 일침을 가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저자가 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만학도로 미술을 배우기 위해 화실에 들렀을 무렵이었다. 아무 그림이나 그려오라는 선생님의 말에 따라 길거리 모퉁이 사이로 빠져나온 잡초를 그렸다. 그림을 보고 선생님은 이렇다 할 말씀이 없었고, 저자도 그림을 한곳에 처박아놓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

미대 4학년 졸업전을 앞두고 수풀을 찍었고 그 이미지가 가슴에 와 닿았다. 어릴 적 북한산 인근에 살았기에 접했던 자연은 그의 내면에 남다른 감성을 선사했고 서로 다른 이중이 어울려 사는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졸업전 때 자화상과 ‘Heterogeneous’라는 작품을 내 걸었는데 공통점이 없는 두 그림이 자화상이었다고 고백하는 부분은 사뭇 이채롭다.

언급한 대로 책은 풀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기술돼 있다. ‘야근’이라는 작품은 풀이 밤중에 일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대학원 졸업 후 조교를 하던 무렵, 학과 사무실에 있던 큰 나무 화분이 모티브가 됐다.

일이 많거나 급히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야근을 해야 했다. 일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나무는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형광등 불빛으로 광합성을 해 소량의 산소를 만들어낸다. ‘야근’은 나무가 사람과 똑같이 사무용 의자에 앉아 근무를 하는 장면을 초점화했다. 사무용 의자에 앉아 가지를 뻗어 마우스를 잡고 있는 모습은 당시 일에 파묻혀 있던 작가의 모습을 대변한다.

잡초와의 인터뷰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도 있다. ‘비인간’ 존재와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차원으로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감정을 이입해 본 것이다. ‘잡초와의 인터뷰 I-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는 희극적이면서도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풀이 공포에 질릴 수 있게끔 잡초 제거 도구가 주변에 놓여 있다. 뽑고 끊고 파내는 도구에서부터 아예 불에 태워버릴 화염방사기까지 비치돼 있다.

‘잡초와의 인터뷰 II-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는 잡초의 관점에서 바라본 삶의 모습을 묘사했다. 어떤 풀은 선베드에 누워 음료를 마시고 휴가를 떠나거나 연인과 사랑을 나누기도 한다. 고급스러운 도자기 화분에 담긴 난초는 ‘신분상승’을 학수고대한다. 풀을 의인화했을 뿐, 그림은 모두 인간이 원하고 추구하는 삶의 모습들을 반영한다.

저자는 식물에 대해 “제멋대로 뻗어 나가는 것 같지만 실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법칙과 질서를 따라 성장하고 움직인다”고 언급한다.

〈목수책방·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재충전



책은 식물과 나무를 사람의 시선이 아닌 자연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야근’(아래)와 ‘재충전’

죽이고 싶은 엄마에게

한시영 지음

기이하다 못해 섬뜩한 제목이다. 간혹 엄마를 미워하는 자식이 있기도 하지만 이토록 노골적인 제목이라니. 하지만 책을 읽다보면 누구보다 엄마를 성실히 사랑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한시영 에세이 ‘죽이고 싶은 엄마에게’는 27년간 ‘알코올중독자의 딸’로 살아온 저자가 지나간 시간을 열심히 곱씹은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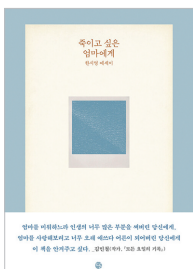
알코올중독자인 어머니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성장한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사랑, 용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이영숙 죽여라!”라고 다이아리에 적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책은 2부로 나뉘어 저자의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해 여름의 오이저녁국, 흙 스위트 흙, 달린 방문, 분홍색 나뭇잎, 아저씨 접니다, 섬섬옥수 등 각 장을 통해 어머니와의 일화, 가족과의 관계, 자신이 어머니가 된 후의 경험 등을 통해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도 사랑과 용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만약 다시 태어나 엄마를 선택할 수 있다면”이라는 질문 앞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다시 엄마를 선택한다고 대답할 거야. 또 한 번 엄마를 사랑할 것이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할 테지만 그림에도 엄마를 선택할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며 완벽이라고 확신해. 내게 한계였던 동시에 나의 잠재력이었던 나의 엄마. 나는 내 부엌에 노란 프리지어를 꽂아놓고 엄마를 떠올려. 그러니까 향 맡으러 와줘요. 온 김에 내 아이들도 보고요. 봄바람으로 와서 아이들 이마 스치고 가줘요.”(에필로그 중에서)

〈달·1만7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다시 만난 민주주의

시사IN 편집국 지음

제21대 대통령선거(6월 3일)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헌정 사상 두 번째 조기대선이자,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묻는 중대한 갈림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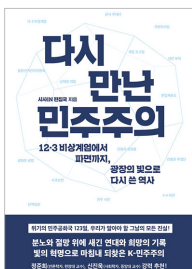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가 지켜왔다고 믿었던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줬다.

대통령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헌법을 농락했고, 무장한 계엄군이 ‘민의를 전당’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했다. 촛불을 든 시민들과 응원봉을 든 청년들이 거리로 나왔지만, 동시에 “계몽령”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목소리로 존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국 파면됐으나,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에도 그의 그림자가 여전히 짙게 드리워있다.

독립언론 시사IN의 기자들이 펴낸 ‘다시 만난 민주주의’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까지, 123일간 대한민국이 겪어야 했던 긴박한 정치적 소용돌이를 생생히 담아낸 르포르타주다. 한밤의 담화문, 국회 담장을 넘는 국회의원들, 관저 앞의 대치, 거리로 나온 시민 등 대한민국 현대사에 또렷이 남겨질 장면들을 되짚는다.

책은 하나의 명백한 전제를 깔고 있다.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잘못이었다.” 이는 정치적 주장이나 의견이 아닌,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우리 사회의 기본 전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정리한 기록물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을 역사의 법정 위에 세워두고, 다시는 그 어두운 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억의 증거다.



〈아를·2만2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기병과 마법사

배영훈 지음

상상해본 적 있는가? 억압하는 폭군과 그에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영웅의 이야기를. 이야기 속 영웅은 ‘해리포터’의 주인공 해리의 모습일 수도,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다. 낯선 서양인의 모습이 아닌, 우리 곁에 있을 법한, 우리를 닮은 영웅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상상력으로 가득한 작가”, “세상을 해석하는 다채로운 도구를 보유한 작가” 등 평단으로부터 극찬을 받아온 작가 배영훈이 데뷔 20주년을 맞아 한국형 판타지 소설 ‘기병과 마법사’를 펴냈다.

한반도 북부의 어느 대륙을 떠오르게 하는 상상의 나라와 전군대를 닮은 상상의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하이 판타지(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무대로 하는 판타지) 장르. 영민한 주인공 영윤해의 모험과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연대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다.

배영은 북방 대륙을 떠오르게 하는 가상의 나라 ‘사라’. 군주의 폭정으로 백성들은 마음껏 숨조차 쉬기 힘든 시대, 왕의 형 영유의 딸 윤해는 강제로 원치 않는 혼인을 치르게 되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정제불명의 목소리와 함께 각성한 윤해는 자신도 알지 못했던 마법의 힘을 발휘해 위기를 벗어난다. 이후 유배지 ‘솔름’에서 만난 신비로운 기병 다르나킨과 함께 윤해는 점차 이 세계의 비밀과 마주하게 된다. 이들은 서서히 드러나는 제왕의 그림자 속에서 정제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와 예기치 못한 위기들을 하나씩 돌파해 나간다.

저자는 ‘기사’라는 서양 판타지 소설의 소재를 ‘기병’ 다르나킨이라는 한국적인 인물로 재해석했다. 숨 막히는 전술과 전투 장면 등을 통해 특유의 박진감 넘치는 서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북하우스·1만75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받은 광고를 입니다.